

2009 아시아 의료복지시설 국제심포지엄을 다녀와서

Symposium on Healthcare Architecture in Asia 2009

최광석<이사, 대불대학교 부교수>

Choi, Kwang-Seok<Director, KIHA / A. Professor, Daebul University>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공식일정으로 중국 상해의 국제회의센터에서 2009년도 아시아 의료복지시설 심포지엄(SHAA2009)이 개최되었다. 아시아심포지엄은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일본병원건축협회, 중국병원협회 병원건축연구분과 3단체가 주관하고, 한중일 3개국의 의료복지시설 전문가들이 모여 2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대회로서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공유와 각국의 회원들 간의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으며, 2년 후인 2011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된다. 일본 고히라자 집합주택의 경향



그림 1. 와이탄에서



그림 2. 국제금융센터 전망대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의료환경(Health Environment for Sustainability)으로 최근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의료복지시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포지엄에서 나타난 각국의 관심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재해, 특히 지진에 대응하는 병원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병원건축의 발전상황과 도시와 농촌의 의료체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원의 건립으로부터 점차 국가의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생각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주제도 관심이 높았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보다는 녹색병원, 에너지절감, 디자인의 적응성 등의 추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정도였다. 일본도 지진에

대응하는 병원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설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우리 학회에서는 학계와 설계업체 회원이 참가하여 디자인의 적응성과 지속가능한 환경 그리고 한국병원건축의 설계 경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심포지엄과 동시에 3국의 의료시설 작품전시 행사가 병행되었는데,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설계업체 중 15개 사가 제출한 최근의 설계작품을 전시하였다. 한국에서 전시작품 패널제작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운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각 설계사에서 제출한 작품 파일을 족자로 만들어 전시패널에 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들고 갈 정도로 운반이 용이하였고, 화질도 나쁘지 않았다. 특히, 작품의 탈부착이 매우 간편하였다. 행사 중 관람객이 중국이나 일본의 작품보다는 우리나라 설계사의 작품 주변에서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진을 찍는 분위기여서 좋았다.

심포지엄 발표가 끝나고 황포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수상레스토랑에서 열린 저녁만찬에서는 3개국 집행부와 참가자들이 어울려 명함을 건네고, 환담하며, 옥외감판에서 황포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상해에서 좋은 추억의 밤이 되었다.

29일 후단대학 부속 어린이병원과 상해 중의약대학 부속병원을 견학하는 것으로 금번 아시아 국제심포지엄 2009의 공식행사를 모두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림 3. 중국 국제심포지엄 총회



그림 4. SHAA2009 이특구 회장 축사



그림 5. SHAA2009 발표장 전경



그림 6. SHAA2009 3개국 건축작품전시장



그림 7. 행사 현수막 앞에서



그림 8. 회의장에서



그림 9. 만찬장소인 수상레스토랑



그림 10. 만찬 전경



그림 11. 후단대학 부속 어린이병원 설명회



그림 12. 후단대학 부속 어린이병원 로비



그림 13. 상해중의약대학 부속병원 병동



그림 14. 상해중의약대학 부속병원 약탕기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0년간 학회장으로서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를 이끌어 온 서울시립대학교 이특구 교수로서는 개인적으로 올해 학회장 퇴임과 대학 정년퇴임을 동시에 앞두고 가진 마지막 국제행사로써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아시아 심포지엄을 마치고 돌아온 후, 지난 5월 21일 학회 정기총회에서 이특구 교수는 회장의 임기를 다하고, 명예회장으로 위촉되었으며,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가 새 회장으로 선출되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한 이특구 회장께 지면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참가한 군산대 문창호 교수, 홍익대 오은진 교수, 범건축 원형준 부사장, 삼우건축 김동규 실장, 그리고 심포지엄 참가를 총괄 지휘한 이정만 부회장, 박봉태 부회장, 유영민 부회장, 김상길 이사, 박영건 이사, 안정웅이사, 이해원, 한상목 이사, 원은경 학회 실장과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작품전시회에 훌륭한 작품을 출품한 간삼건축, 공간건축, 무영건축, 범건축, 본디건축, 삼성의료설비, 삼우건축, 에이텍건축, 우일건축, 유일엔지니어링, 정림건축, 현신건축, 희림건축, SD파트너스 등 우리 학회에 보여준 한결같은 애정과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학회행사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림 15. 회의장 전명에 걸린 심포지엄 광고현수막 앞에 선 이정만 부회장(좌측, 한양대 교수)과 이특구 회장(우측, 서울시립대 교수)



그림 16. 아시아심포지엄의 창립자 3인방(좌로부터 이특구 회장, 유동 중국병원협회 병원건축연구분과 회장, 나가사와 일본병원건축협회 회장)



그림 17. 절친한 관계인 이특구 회장과 황시귀
중국IPPR 건축가 단장



그림 18. 소주 호구탑 앞에서 중국인들과...